

## 요한의 세계관

- 배타주의인가? 포용주의인가? -

김동수\*

### 1. 서론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배타(exclusion)보다 포용(inclusion)의 가치를 선호한다.<sup>1)</sup>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미로슬라브 볼프(M. Volf)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겪은 배타 경험에서 문제의식을 느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배제를 배격하는데, 그 이유는 “예언자, 복음서 저자, 사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대하든 배제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2)</sup> 즉 그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 성서 저자들 모두가 일관 되게 지지하는 가치라고 본다.

논자는 본 논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저자가 과연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기본 가치로 가지고 있었는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볼프

---

\* 평택대학교 교수, 신약학

1) 바톤은 현대 서양 세계에서 다원주의를 긍정적인 것으로, 이원론(배타주의)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역사상 종교 전쟁을 많이 겪어 상대방에 대한 용인을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Stephen C. Barton, “Johannine Dualism and Contemporary Pluralism,” Richard Bauckham and Carl Mosser(eds.), *The Gospel of John and Christian Theology*(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17.

2) M. Volf,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102-103.

의 견해와는 달리 많은 요한신학 연구자들은 요한복음에는 그 적대자에 대한 사회적·신학적 배제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학자들은 요한복음에는 반유대주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적대자들에 대한 적의는 상생보다는 상극의 가치를 표출한다고까지 주장한다.<sup>3)</sup> 현대 사회는 “포용, 평등과 종종 상대주의”를 선호하는데, 요한복음은 “배제, 이원론, 절대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컬페퍼(R. Alan Culpepper)는 ‘제4복음서에 나타난 포용주의와 배타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요한복음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포용주의인가 아니면 배타주의인가?”라고 질문한다.<sup>5)</sup> 한 마디로,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요한복음에는 각각 사회적·신학적 배타주의와 포용주의가 복잡하고 역설적이게 공존한다는 것이다. 첫째, 사회적으로 요한 공동체는 회당에서 쫓겨난 경험으로 인해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타주의를 표출하는 동시에,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포괄하여 하나가 되라는 요청을 하는 포용주의가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요한복음에는 예수에 의해서만, 또 그를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신학적 배타주의가 있지만, 성육한 로고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을 말하여 신학적 포용주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이 부분에 관한 “긴장과 역리”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sup>6)</sup> 그는 요한복음 내에 있는 사회적·신학적 배타주의와 포용주의를 건설적인 긴장이라고 본다.

요한복음이 궁극적 배타주의를 취한다는 주장과 배타주의와 포용주의를

---

3) 그래서 카세이는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더 이상 현재 있는 그대로의 요한복음 자체를 진실된 문서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까지 주장한다. M. Casey, *Is John's Gospel True?* (London: Routledge, 1996), 3.

4) R. Alan Culpepper, “Inclusivism and Exclusivism in the Fourth Gospel,” John Painter et al. eds., *Word, Theology, and Community in John*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2), 85.

5) Ibid.

6) Ibid., 105-106.

역리적으로 그대로 긴장상태로 놓아두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논자는 요한복음 저자는 궁극적인 배타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시에 애매모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양가적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자는 요한복음 저자가 적대자 혹은 경쟁자로 여기는 두 그룹에 취하고 있는 태도에 주목할 것이다.

첫째, 요한의 적대자 혹은 외부자인 “유대인들” 혹은 “세상”이라고 표현된 불신자 그룹에 대한 요한의 태도다. 요한은 이들을 궁극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것인가? 요한의 이원론은 적대자들에 대한 궁극적 배타를 염두에 둔 것인가?

둘째, 요한의 경쟁자 그룹인 베드로로 대표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요한의 태도다. 예수가 사랑한 제자(애제자)를 그룹의 대표자로 여기는 요한 공동체는 타 기독교 공동체를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는가? 베드로로 대표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요한은 배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또 요한복음 안에 있는 구별된 신자 그룹 사이에서 엘리트 그룹이 다른 그룹을 배제하는가?

논자가 본 논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요한은 외부자 혹은 적대자에게 궁극적 배타를 꿈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경쟁자인 여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도 상호 선의로 공존하려고 했지 그들을 적대적 경쟁자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 외부자들과 관계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요한이 외부자들 혹은 대적자들을 궁극적으로 배제할 자들로 여겼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이러한 배제는 요한의 독특한 이원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실제로 그러한 적대자들에 대한 배제를 요한이 염두에 두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2.1. 요한의 세계관: 이원론인가? 이원성인가?

요한은 복음서에서 빛과 어둠의 메타포를 광범위하게 이원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1:5, 7, 9; 3:19-21). 빛과 어둠의 메타포는 위와 아래(3:31), 땅과 하늘(3:12), 영과 육(3:6; 6:63), 영생(혹은 생명)과 멸망(3:16)의 메타포로 이어진다. 빛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어둠은 거짓에 속한 것이며, 각각에 속한 사람은 각각을 사랑하며 상대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18:20). 요한은 오직 빛에 속한 자들인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13:34). 요한서신에서도 사랑 명령은 내부자인 “서로”를 향해 있다(요일 4:7, 11; 요이 1:5).

요한은 위와 같은 세계관에 입각하여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으로 대표된다. “하나님의 자녀”(1:12)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3:3, 5), 빛의 아들이며(12:36), 예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15:16), 예수의 양(10:27)이다. 반면, 마귀의 자식(8:44)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3:3), 멸망의 자식이며(17:12), 마귀다(6:70).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3:36).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불신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불신앙 집단을 가리키는 “유대인”과 “세상”에 대해서 그 어느 복음서에서보다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것과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8:44)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5:18-19)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혹독한 비판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 당시의 정황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1세기 말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 회당과의 신학적 갈등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과 완전히 갈라진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적의가 들어간 것이라고 흔히 해석한다. “유대인들”에 대한 적의는 역사적 예수의 차원에서의 말이라기보다는 요한 공동체 차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회당에서 쫓겨난”(ἀποσυνάγωγος)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요한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9:22; 12:42; 16:2).<sup>7)</sup>

이렇게 유대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요한 공동체는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자신들만의 닫힌 그룹을 형성했고, 그에 따라서 섹트적인 그룹 정체성이 생겨났고, 이어서 자신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했고, 그것에 따라 이원론적 사상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점점 더 섹트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동체 내부자 외에 타자를 인정할 수 없는 신학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외부자와 내부자로 나누고, 오직 내부자들끼리만 사랑하라는 윤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생된 것이라는 것이다.

믹스(Wayne A. Meeks)는 요한 문헌에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 그 배후에는 “본질적으로 ‘아래의 일들’, 즉 어둠과 마귀에 속한 ‘이 세상’에 대립하여 고립되어 있는 작은 신자들의 집단”이 있다.<sup>8)</sup> 믹스에 의하면 이 집단은 “비합리적이고, 비조직적이며, 불완전한” 자기들만의 “닫힌 은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이 그들 조직체 안에서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했다.<sup>9)</sup> 이렇게 닫힌 은유 체계를 가진

7) J. Louis Martyn,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3rd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현재 “회당에서 쫓겨난”이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마틴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병립하고 있다.

8) Wayne A. Meeks,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JBL* 91 (1972), 44-72. 이 논문은 김형동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요한 분파주의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 「신약논단」 18 (2011), 323-373. 인용은 366.

이 그룹은 당연히 내부 문제에 몰두했지 선교는 꿈꾸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0)</sup> 그들은 소종파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일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 고립되었다는 것이다.<sup>11)</sup> 요한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섹트적인 단체였다는 믹스의 주장은 그 이후 많은 요한 학자들에 의해서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요한 공동체가 신학적 섹트는 아닐지라도 사회적인 섹트였다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sup>12)</sup>

하지만 믹스의 주장이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조직신학자인 볼프는 위와 같은 믹스의 요한 신학 해석에 도전한다. 그는 믹스가 주장하는 요한 신학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요한 신학이 흔히 현대의 다원주의와 상반된다고 여겨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볼프는 요한복음에 믹스가 해석한 것과 같은 섹트적인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비앙키(Ugo Bianchi)의 이원론에 대한 정의에 의해 요한복음의 사상을 분석해 보면 요한의 사상은 이원론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비앙키에 따르면 어떤 것이 이원론적이 되려면 선과 악에 대한 단순히 상반된 대조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이원성이 서로 상반된 존재론적 원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의 이원론은 이원론이 아니라 “대립적 이원성”(oppositional dualities)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프는 제안한다.<sup>13)</sup>

볼프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두 가지로 든다. 첫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원성인 빛과 어둠을 예로 들면, 그것은 대립되게 영원히 존재하는 원리가

9) Ibid., 366.

10) 그래서 믹스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선교 소책자”가 아니며, 이 책의 “핵심 기능들 중의 하나는 공동체의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Ibid., 369).

11) Ibid., 370.

12) E.g., David Rensberger, *Johannine Faith and Liberating Communit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1988); Robert H. Gundry, *Jesus the Word according to John the Sectarian*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13) M. Volf, “Johannine Dualism and Contemporary Pluralism,” *Modern Theology* 21 (2005), 190-192.

아니라는 것이다. 어둠은 빛에 의해서 몰아낼 요소이다. 어둠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행위에 의해서 없어질 존재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창조의 구속자”인데,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목적은 바로 대립된 이원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세상의 이원성은 하나님과 예수의 제자의 상통으로 변환된다.”<sup>14)</sup> 그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그 결과로 창조 내에 있는 대립된 이원성도 극복된다. 남녀 사이의 적의는 그들 간의 평등 공동체에 의해서 극복되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있는 민족적 분열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4:23)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상호 다리로 연결된다. 창조와 구속에 대한 요한의 기사는 함께 이원론적인 사상 체계를 약화시킨다.<sup>15)</sup>

한마디로 말해,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요한의 이원성 사상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의 이원성 사상은 그 용어와 표현은 비슷하지만 영원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쿨란의 이원론 사상과는 다르다. 양자는 수정된 이원론이라는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브라운(R. E. Brown)이 잘 보여준 대로 쿨란 문헌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하며 이들은 신적 개입의 때까지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 맞서 싸우”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어둠을 이겼으며(1:4-5, 9),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빛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3:19-21).<sup>16)</sup> 요한에게서는 이원성이 예수에 의해서 극복된다.

---

14) Ibid., 192.

15) Ibid., 193.

16) R. E. Brown, 『요한복음 I』 (서울: CLC, 2013), 85. Cf. James H. Charlesworth,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alism in 1QS 3:13-4:26 and the ‘Dualism’ Contained in the Gospel of John,” James H. Charlesworth, ed., *John and the Dead Sea Scrolls* (N. Y.: Crossroad, 1991), 76-106.

## 2.2. 외부자들에 대한 요한의 태도: 적의적인가? 호의적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내러티브에서 적대자들에 대한 예수의 언명은 가혹하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적대자들을 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되어 왔다. 요한복음에서 외부자는 한마디로 불신자다. 불신자는 “세상” 혹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요한의 태도를 보면 외부자들에 대한 요한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여기에는 중립적인 의미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혼재해 있다. 첫째, 중립적인 의미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다(1:9; 17:11). 둘째, “세상”은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구원의 대상이다(3:16; 4:42). 이것은 긍정적 의미의 용례이다. 셋째, 이 “세상”이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소외되고 그가 피송한 이들 예수와 반목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실체가 된다(14:30; 15:18-19; cf. 요일 2:15-17; 3:1, 13). 이것은 부정적 의미의 용례이다.<sup>17)</sup>

그러면, 세상과 관계된 위 용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세상”에 대한 중립적 용례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한 용례는 이 단어가 일반 문서나 신약의 다른 문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긍정적인 용례와 부정적인 용례를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은 특히 고별사화에 나타는 부정적 용례에 주목하여(14:17; 15:18-19; 17:14, 16), 요한의 “세상”에 대한 태도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만을 말하고 있다(13:34). 또 요한복음의 예수는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그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다(17:9).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요한복음 내에 있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 용례는 요한 공동체의 발전 단계에서

---

17) Stanley B. Marrow, “κόσμος in John,” *CBQ* 64 (2002), 96-100.

초기에 있었던 것을 마지막 본문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sup>18)</sup>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며(1:10),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3:16),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이다(3:17; 4:42; 6:51). 그런데, 예수의 지상 사역 동안 예수의 불신자들 또한 “세상”으로 불린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스르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대적한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결국 깨닫게 하려고 한다(17:21, 23). 예수와 “세상”의 소원함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대속 사역과 이어지는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해소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냈듯이, 예수의 제자들도 세상에 파송받는다(17:18). 그래서 발츠(H. Balz)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세상 자체는 “거부된 것이 아니라 극복되는 것이다(16:33; 요일 5:4f.).”<sup>19)</sup>

또 그 동안 많이 주장되었던 것이지만, 요한의 세상 이해를 잘못 해석한 것 중의 하나는 예수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17:9), 예수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석한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의 일치를 통해서 결국 세상이 예수의 정체성을 알아 세상도 예수의 제자의 일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기에(17:21, 23), 결국 “세상”도 예수의 기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예수가 “세상”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는 것을 예수가 세상을 궁극적으로 미워하라고 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대한 용례는 거의 그대로 “유대인들”이라는 말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용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용례는 중립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18) R. E. Brown, 『요한 교회의 신앙과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70. 각주 6.

19) H. Balz, “*κόσμος*,” *EDNT* vol II, 312.

것이 있다. 첫째, 중립적인 용례는 그야말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라는 의미다(2:13; 6:4; 18:20). 둘째, 긍정적인 용례가 있다.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4:22), 유대인들도 믿는 자들에 포함된다(8:31). 셋째,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용례가 많고 불신자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의 언명한 혹독하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7:19), 예수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다(8:44).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묘사는 예수와 유대인들의 갈등 상황에서 주로 나온다.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갈등이 아닌 상황에서 쓰일 때는 어떤 “경멸적인 뉘앙스”를 띄는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sup>20)</sup>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써 세상에 파송된 자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에 말과 행동을 신성모독 행위로 몰아 죽이려 한 것이다(5:18; 19:7).<sup>21)</sup>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대인들”에 대한 해석도 “세상”에 대한 해석과 맥을 같이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요한의 부정적인 묘사가 지나치며, 그것은 예수 시대 역사적 상황이 아니라 일세기 말 크리스천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영원히 적대적이게 묘사되지 않는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다. 당시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유대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프롤로그에서 “세상”과 “자기 백성”(유대인들)은 불신앙에 있어 같은 종류로 취급된다(1:10-11). 예수는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 것이다.<sup>22)</sup>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부정적인 어투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세상”과 “유대인들”은 예수의 그의 제자들의 영원한 대적자

20) H. Kuhli, “*Ἰουδαῖός*,” *EDNT* vol. 2, 196.

21) Marrow, “*κόσμος* in John,” 100-101.

22) 볼프도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 했던 구체적인 불신자 집단이었다고 본다. M. Volf,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21세기 이슈들과 신학적 성경 읽기』(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139-144.

로 묘사된 것이 아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해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인 그들에 대해서 예수는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의 심판이 아니었다. 다만 그들의 불신앙적 행동은 예수가 말한 원리에 따라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12:47-48).<sup>23)</sup>

### 2.3. 요한의 배타적 구원론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배격되어야 하는 것인가?

요한이 상극적 배타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흔히 비판받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유일성, 오직 그에 대한 신앙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다. 요한은 구원론에 있어서 배타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 14:6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요한의 배타주의가 문제라고 본다.<sup>24)</sup> 이것은 종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계 평화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요한은 긍정적인 의미로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지, 타 종교를 부정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한의 배타적 구원론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볼프는 그렇지 않다고 논박한다. 우선, 이러한 구원론이 타 종교인에 대한 폭력을

23) 요한복음과 반유대주의는 그 자체로서 큰 학문적 이슈가 되는 주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수 없다. 논자는 요한은 반유대주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요한이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의 신적 메시아로서의 기독교적 천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수의 유대인 당국자들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보라. Reimund Bieringer, Didier Pollefeyt, Frederique Vandecasteele-Vanneuville, *Anti-Judaism and the Fourth Gosp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1). 여기에는 이 주제에 관한 서론과 11편의 논문이 있다.

24) 용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Amos Yong,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Johannine Dualism and the Challenge for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Today,” *The Journal of Religion* 89 (2009), 31-56.

조장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의 왕권은 세속의 왕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요 18:33-38).<sup>25)</sup> 다음으로, 한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그것을 배타적으로 규정하든 포용적으로 규정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그러한 배타성이 타자를 전혀 품지 못하는 배타성인가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한은 기본적으로 현대의 종교 다원주의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볼프에 따르면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 구원론과 관계하여 긍정적인 묘사를 한 부분으로 보아(4:22), 요한의 이러한 특수한 배타성이 현대 세계에서 타자와 공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sup>26)</sup>

### 3. 내부자들과 관계하여

어떤 저자 혹은 특정 그룹이 상생의 원리를 펼쳤는가 아니면 상극의 원리를 펼쳤는가는 자신의 적대자 혹은 그 그룹에 대한 그의 태도보다도 경쟁자 그룹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더 잘 나타나게 마련이다. 적의는 먼 사람보다도 형제들 사이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요한이 상생을 추구했는지, 혹은 상극을 추구했는지는 동료 신자에 대한 그의 태도에 더 명확히 드러난다.

#### 3.1. 베드로와 애제자: 호의적 경쟁 관계

문제는 우리가 요한과 그 그룹과는 구별되는 크리스천 그룹을 요한복음

---

25) Volf,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21세기 이슈들과 신학적 성경 읽기』, 148.

26) Ibid., 149-151.

내러티브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다른 정경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행함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에(행 1:1), 여기에 초기 교회의 크리스천 그룹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는 그 책의 장르상으로 어렵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애제자가 요한 그룹을 대표한다는 것은 요한 학자들 사이에는 널리 동의되는 바다. 이 애제자는 요한복음 내용의 증언자 겸 기록자일 뿐만 아니라(21:24),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구속 사역의 주요 장면의 증언자다(19:25-27, 35). 요한복음 말미에는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나온다(21:23; cf. 20:17). 우리는 이 그룹을 흔히 요한 공동체라 부른다.<sup>27)</sup>

그렇다면 이 요한 공동체와 구분되는 다른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요한복음 내러티브 안에서 구별해 낼 수 있는가? 다행히도 공관복음과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에는 애제자와 중요한 순간에 같이 있으면서 활동하는 제자가 나타나 있다. 그는 예수의 수제자요 초기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장면에서(13:21-30), 예수의 수난 주간부터 예수가 체포될 때(18:15-18), 예수의 빈 무덤에서(20:1-10), 또 예수의 갈릴리 부활 현현 장면에서(21:1-23) 두 제자는 같이 등장한다. 애제자가 요한 공동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베드로는 사도적 공동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sup>28)</sup> 요한은 이 두 제자간의 관계를 미묘하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27) 요한복음 배후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다음을 보라. Edward W. Klink III, *The Sheep of the Fold: The Audience and Origin of the Gospel of Joh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Hugo Mendez, “Did Johannine Community Exist?,” *JSNT* 42 (2020), 350-374.

28) 두 인물이 초기 교회의 특정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김동수, “요한복음의 베드로와 애제자: 적인가? 동지인가?,” 「복음과 신학」 6 (2003), 152. 각주 2. 예를 들어 퀴스트는 애제자는 “요한계 기독교”를, 베드로는 “사도적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본다. Kevin Quast, *Peter and the Beloved Disciple: Figures for a Community in Cri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8. 볼트만은 베드로를 유대계 기독교로, 애제자를 이방계 기독교로 본다. R. Bultmann, *The Gospel of John* (Oxford: Blackwell, 1971), 673. 호킨은 베드로를 전체 교회(*Gesamtkirche*)로, 애제자를 개별(지역) 교회(*Einzelkirche*)로 본다. David J. Hawkin, “The Function of the Beloved Disciple in the Johannine Redaction,” *Laval Théologique et Philosophique* 33

입장에서 경쟁자 그룹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논자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애제자의 관계 묘사를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그 동안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적의라고 본 학자들도 있었고, 우정이라고 본 학자들도 있었다.<sup>30)</sup> 전자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요한복음에는 이른바 ‘반베드로주의’(anti-Petrinism)가 있다고 주장했다.<sup>31)</sup> 혹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요한이 이들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묘사하다가, 21장에 가서는 베드로의 위치가 회복되어 둘의 관계가 보다 우정에 가까운 관계로 묘사한다는 주장이 있었다.<sup>32)</sup> 하지만 논자의 이전 연구 결과 요한은 이 두 제자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있으며, 그 둘의 관계는 우정에 바탕을 둔 경쟁관계라고 보았다.<sup>33)</sup>

---

(1977), 146.

- 29) R. Alan Culpepper, 『요한복음 요한서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61-62. 켈페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베드로 계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보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애제자의 관계는 두 인물이 상징하는 공동체 간의 관계를, 특히 요한 공동체가 사도적 공동체인 베드로 계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미 스미스는 요한복음을 요한 공동체와 회당과의 갈등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내부 논쟁”(intra-Christian controversy)으로도 읽자고 제안한 바 있다. Terrence. V. Smith, *Petrine Controversies in Early Christianity: Attitudes towards Peter in Christian Writings of the First Two Centuries* (Tübingen: J. C. B. Mohr, 1985), 143-144.
- 30) 이들의 관계를 우정으로 본 대표적 학자들로는 R. E. Brown, O. Cullmann, Kenvin Quast 등을 들 수 있다.
- 31) Graydon F. Snyder, “John 13:16 and the Anti-Petrinism of the Johannine Tradition,” *BR* 16 (1971), 5-15; A. H. Maynard, “The Role of Peter in the Fourth Gospel,” *NTS* 30 (1984), 531-548. 켈페퍼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교황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위치가 강등되어 있지도 않고, 특히 요한복음 21:15-19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하나의 모범 제자로 그려지고 있다고 본다. R. Alan Culpepper, “Peter as Exemplary Disciple in John 21:15-19,”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7 (2010), 165-178.
- 32) E. L. Titus, *The Message of the Fourth Gospel* (N. Y.: Abingdon, 1957), 247. 하지만 서중석은 약간의 변화만 있다고 본다. 서중석, “요한복음서의 베드로와 애제자;” 「신학논단」 19 (1991), 41.

베드로와 애제자가 같이 등장하는 구절 중에서 이 둘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예수의 빈 무덤 사건을 묘사하는 20:1-10이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12에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Ο δὲ Πέτρος ἀναστὰς ἔδραμεν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παρακύψας βλέπει τὰ ὀθόνα μόνα, καὶ ἀπήλθεν πρὸς ἑαυτὸν θαυμάζων τὸ γεγονός.*

놀랍게도 누가복음 24:12에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0:3-10 사이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단어까지 거의 다 그대로 나온다. 위 헬라이어 본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양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다. 누가복음의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보다 역동적인 “밖으로 나가다”(Ἐξῆλθεν)로 바뀌었고(20:3), 요한복음에는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 것만 다르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 구절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최소한도로 말해 누가복음 24:12에 나오는 전승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요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었기에 누가가 요한 전승을 알고 그것을 축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35)</sup> 그렇다면 요한이 누가복음 본문 혹은 그 전승을 어떻게 확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

누가복음 빈 무덤 기사에서와 요한복음 빈 무덤 기사에서 공통적인 것은 여인(혹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다(눅 24:2; 요 20:1). 그 이후 여인들의 대처는 똑같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사도들 전체에게 알리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애제자로 한정한다(눅 24:10; 요 20:2). 또 중요한

33) 김동수, “요한복음의 베드로와 애제자: 적인가? 동지인가?,” 152-173.

34) So Hawkin, “The Function of the Beloved Disciple in the Johannine Redaction,” 145.

35) 누가복음 24:12이 요한복음 20:1-10의 영향을 받아 후에 첨가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본문비평적 원리에 따라 판단해 보면 사본의 무계와 분포에서 본 구절이 원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것은 그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만 빈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오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애제자와 베드로가 같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한 것으로 나온다(눅 24:12; 요 20:3-9).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한 후 결과도 똑같다. 베드로(누가복음) 혹은 베드로와 애제자는 집으로 돌아간다(눅 14:12; 요 20:10).

여기서 요한복음 기사에만 나오는 것은 빈 무덤을 두 제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제자간의 우정과 경쟁 모티브다.

- (1) 두 제자가 빈 무덤으로 가기 위해 등장한다(3절).
- (2) 그 둘이 같이(οἱ δύο ὁμοῦ) 달려간다(4a절).
- (3) 두 제자 중 애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προέδραμεν τάχιον τοῦ Πέτρου) 먼저(πρῶτος) 무덤에 이른다(4b절).
- (4) 애제자가 빈 [먼저] 무덤을 본다(5a절).
- (5) 애제자는 빈 무덤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베드로에게 양보한다(5b절).
- (6) 베드로는 애제자를 따라와서(ἀκολουθῶν)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에 [먼저] 들어간다(6-7절).
- (7) 그 후에야 애제자가 빈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믿는다 [확인한다](8절).
- (8) 두 제자 모두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지 깨닫지 못한 채 각각 집으로 돌아간다(9-10절).

이 기사에 대한 해석도 양 극단으로 갈린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베드로는 애제자를 따라 빈 무덤에 이르렀고, 또 애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는 말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지위를 끌어내리려는 요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sup>36)</sup> 하지만, 빈 무덤을 보고 믿은 결과가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애제자에게만 믿었다는

---

36) R. K. Mahoney, *Two Disciples at the Tomb* (Frankfurt: Lang, 1974), 282.

것을 기록한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만다”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오다”라는 말이 예수를 따를 때 주로 쓰인 전문 용어임을 볼 때 베드로가 애제자를 따라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지만, 문맥에서 이 단어는 애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논자는 여기에서 요한이 베드로와 애제자의 관계를 매우 미묘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요한은 베드로와 애제자를 각 그룹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묘사한다. 애제자는 요한 공동체를, 베드로는 사도적 공동체를 상징한다. 요한은 예수의 12제자 중 수제자이며 12제자의 대표자이고 (6:66-71), 초기 교회의 기둥이었던(갈 2:9) 베드로의 위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두 제자를 거명하는 순서에서 베드로를 앞세운다(20:2-3).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다.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명칭도, 12명의 이름도 다 열거되지 않지만, 요한은 베드로를 사도적 공동체의 대표로 인정한 것이다.

둘째, 요한이 누가복음 전승에 자신의 공동체의 상징인 애제자를 베드로와 나란히 등장시키는 것을 통해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가 사도적 공동체를 부정하거나 그 공동체와 반목하는 사이가 아니라 상호 인정하는 관계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요한은 베드로와 애제자가 “함께”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요한은 이것을 “그 둘이 함께”(οἱ δύο ὁμοῦ)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장면은 베드로와 애제자의 일종의 브로맨스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내러티브 전체에서 베드로와 애제자는 브로맨스의 관계로 나온다.<sup>37)</sup>

셋째, 요한이 묘사하는 이 브로맨스는 아무런 경쟁심도 없는 그런 우정의 관계가 아니다.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더 선호되는 제자는 애제자다. 그는 베드로보다 빈 무덤에 “앞서 달려갔다.”(προέδραμεν) 또 그는 빈 무덤에 먼저 도달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양보한다. 요한은

37) 김동수, “요한복음의 베드로와 애제자: 적인가? 동지인가?,” 152-173를 보라.

애제자를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한 제자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또 그는 베드로보다 더 확실하게 빈 무덤을 확실히 보고 확인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요한은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위치는 부정하지 않지만, 애제자가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요 예수의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한 제자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요한은 애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선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애제자가 베드로보다 빈 무덤에 빨리 달려가 먼저 도착한 것은 애제자의 예수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것 같다. 이것은 베드로보다도 예수와의 친밀도에 있어서는 더 가까움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둘째, 베드로와 다르게 애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는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제자는 빈 무덤을 베드로보다 더 면밀히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또한 애제자가 예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베드로보다 깊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다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요한이 애제자를 예수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애제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 묻는 장면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다(13:23, 25). 이 장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자 예수를 생각나게 한다(1:18). 예수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듯이, 애제자도 예수와 관계를 가장 우선시한다. 둘째, 이렇게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향유하였기에 애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가 부활 후 갈릴리에 나타났을 때 그를 알아본다(21:7). 셋째, 베드로의 순교의 사명과는 달리 애제자의 역할은 예수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이었다(21:22, 23). 그런데 여기서 “머물다”(μένω)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와 제자들의 친밀한 상호 내주 관계에 쓰인 말이다(15:4, 5, 6, 7).<sup>38)</sup>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요한이 베드로와 애제자를 같이 등장시켜 공존과

38) 요한일서에서는 이 단어가 여전히 신자가 예수(혹은 하나님)와의 (상호) 내주(3:6, 24)에 쓰일 뿐 아니라 여러 신앙에 관한 영역에 내주하는 것으로도 쓰인다(2:27; 3:9, 17). H. Hübner, “μένω,” *EDNT* vol 2, 407-408.

아울러 자신의 공동체가 특정 부분에서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부재 시에도 예수와 제자 사이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성령을 통해 계속됨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요한의 특징적 신학적 경향성이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읽는다면, 1세기 말 대부분의 초기 교회가 ‘초기 공교회주의’(early catholicism)화 할 때, 요한은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세기 초 문서인 이그나시우스의 편지들에 나타나는 기구적 교회의 모습은 아직 신약성서 자체에는 그래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은 목회서신에 보인다. 교회의 구성 요소 중 ‘감독·장로들·집사들’이라는 체제가 아직 등장하지는 않지만, 감독과 장로들과 집사들로 이루어진 교회 직제는 이미 가동되고 있었다. 그런데 동시대에 쓰인 요한복음은 이러한 흐름을 역류하여 보다 원초적으로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를 교회의 요체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요한은 이것을 요한 전체 내러티브를 통해서 여러 주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예수와 그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애제자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점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의 주제와 연관해서 요약해서 말하면, 요한은 베드로와 애제자의 관계를 기술하면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적 공동체를 인정하고, 그 공동체를 배제가 아니라 공존의 바탕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요한은 사도적 공동체와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을 기초로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가 교회의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공동체의 차별성을 보여준다.<sup>40)</sup>

39) 김동수, 『요한의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56-157; J. Roloff, *Die Kirche im Neu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299. 하틴은 요한복음의 동시대 작품인 목회서신에 이러한 교회의 “기구화”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 Hartin, P. J. “The Role of Peter in the Fourth Gospel,” *Neot* 24 (1990), 59.

40) 애제자와 베드로의 관계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다음을 보라. 군더는 애제자가 “영적인 통찰력과 지각과 예수의 삶의 사건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뛰어난다고

## 3.2. 신자 간의 일치: 세대 간의 하나 됨

요한복음에서 서로 구별되는 신자 그룹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일치’와 연관된 구절들이다.<sup>41)</sup> 첫째, 예수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천명하면서 (10:11, 14),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10:15), “이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한다(10:16). 둘째, 요한은 예수의 죽음을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요한은 그것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한다(11:51-52). 셋째, 대제사장 적 기도에서 예수의 기도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17:20)이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17:21, 23).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구별된 크리스천 그룹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요한이 꿈꾼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정된 “다른 양들”,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각각 혹은 합해서 어떤 집단을 일컫는가? 우선, 전통적으로는 이 집단을 이방인으로 보았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아 시대에 모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

생각한다. J. J. Gunther, “The Relation of the Beloved Disciple to the Twelve,” *TZ* 37 (1981), 135. 크라게루트는 애제자는 “양”을 베드로는 “교직”을 상징한다. 베드로의 교권적인 권위는 인정되지만, 애제자의 해석적 권위도 주장한다. A. Kragerud, *Der Lieblingsjünger im Johannesevangelium: Ein exegetischer Versuch* (Hamburg: Grosshaus Wenger, 1959), 65-67. 브라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임재를 발견하는 통찰력을 준다는 것”이고 본다. R. E. Brown, 『요한복음 II』 (서울: CLC, 2013), 1849, 와티는 애제자는 베드로 계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교정자”(corrective)였다고 보았다. W. W. Watty, “The Significance of Anonymity in the Fourth Gospel,” *ET* 90 (1978-79), 211.

41) 이 부분은 논자가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결론을 취한 것이다. 김동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교와 일치,” 『신약논단』 12 (2005), 623-643.

것이기에(사 11:12; 미 2:12; 렘 23:3; 겔 34:16; 37:21), 이러한 해석은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본래 예수의 유대인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룹과 “다른 양들”도 당연히 이방인으로 여겨졌다. 이것과 연관해서 “예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이방인으로 여겨졌다.<sup>42)</sup>

하지만, 자세히 고찰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일치를 이룰 그룹을 이방인이라고 한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약의 다른 문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유대인 대 이방인의 다름과 그들의 일치라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슈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천명하는 것과는 달리(고전 12:13; 갈 3:28),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자와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나눈다(20:29). 사실 요한복음 10:20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12제자를 비롯한 첫 세대 제자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차세대 제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유대인/헬라인 제자들이 아니라 첫 세대/차세대 제자들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10:16을 보면, 여기에서도 구별되는 것은 유대인/이방인 제자가 아니라, “이 우리” 즉 예수 말씀 당시에 제자 무리에 들어 있는 사람들과 미래에 구성될 한 양 무리이다. 신약의 다른 문서들을 볼 때 첫 번째 구성된 양 무리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기에, 나중에 구성될 양무리가 당연히 “이방인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은 여기에서 유대인/이방인 구도를 상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γενήσονται)을 통해서 볼 때, 요한이 의도한 것은 이 무리는 예수 부활 후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무리도 차세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홀려진 하나님의 자녀”(11:52)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이 용어 자체가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밖에

42) 논자도 처음에는 이런 견해를 가졌었다.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65-67.

살면서 메시아 시대에 모여들 이방인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한은 이것을 자신의 신학에 맞게 새로운 의미로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해(1:12), 거듭나서(3:3, 5),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가리킨다. 가야비는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온 유대 민족(ἔθνος τὸ ἔθνος)을 살리라고 한다(11:50). 여기서 그가 사용한 용어는 “백성을 위하여”(ὕπὲρ τοῦ λαοῦ)인데, 그가 의미한 것은 유대 백성이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독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를 의도한다. 이 때 요한복음 저자는 가야바의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예수는 유대 민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는 유대 민족(ὕπὲρ τοῦ ἔθνους)을 위해서 죽으심과 동시에(11:51b; 11:52a),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τὰ τέκνα τοῦ θεοῦ τὰ διεσκορπισμένα), 즉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한다(11:52b).

위의 주석적 결론이 맞다면, 요한복음의 예수는 첫 세대 제자들과 차세대 제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갈등 없이 하나되는 것을 꿈꾼 것이다.<sup>43)</sup>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되기 어려운 요소는 어떤 것인가? 바울에게서처럼 그것은 유대인/헬라인, 종/자유인, 혹은 남자/여자의 구도가 아니라(고전 12:13; 갈 3:28) 예수 부활을 목도한 사람/목도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첫 세대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것으로 우쭐 대면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도마에게 차세대 크리스천을 상징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0:29).

43)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치할 만한 구절 이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신자의 일치할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있다. “찢어지지 않은 예수의 속 옷”(19:23-24)과 “찢어지지 않은 그물”(21:11)도 일종의 교회 일치에 대한 표현이다. 김동수, “요한복음 주석서에 나타난 이상근의 교회 이해,” *Canon&Culture* 11 (2017), 143-168.

#### 4. 결론과 함의

초기 교회에서는 교회의 애복음서였던 요한복음이, 21세기에는 많은 요한 신학자들에 의해 신학적/사회적 배제의 신학을 내포하고 있는 반다원주의적 문서로 읽혀왔다. 논자는 본 논문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배제의 신학을 갖고 있었는가를 각각 외부자들과 내부자들에 대한 그의 시각과 태도를 통해서 찾아내보려 했다. 그 결과, 외부자들에게는 이원론적 원리를 들어 그들을 영원히 배제하려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요한의 세계관은 이원론이라기보다는 이원성으로, 적대자를 반대 그룹으로 나누어 영원히 배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의 태도를 문제 삼지만 그들을 신앙으로 초대하여 결국 그들과 함께 하려는 면에서 요한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 내부자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요한은 내부자 안에서 자신의 그룹과 타 그룹을 구별하지만, 그 구별이 곧 차별이나 배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룹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요, 결국은 타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보았고, 그 정체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요한이 추구한 것이 배제라고 할 수는 없다.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와 상대방이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공동체의 역할의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천명한다.

요한이 배제주의(상극)가 아니라 포용주의(상생)의 신학을 추구한 신학자였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논자는 두 가지 면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부 학자들이 그 효용성을 의심하는 것과는 달리,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요한복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익한 신앙 문서다. 요한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유일성과 신앙의 배타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타 종교인이나 외부인을 배제하거나 미워하는 것으로 발현되지 않는다. 요한의 이원성 사상에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타자와 대화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둘째, 요한의 일치 신학은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요한 공동체는 1세기 말 정통 신앙 공동체의 하나로서 다른 공동체와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동체에 비해 자신의 공동체의 우선성과 뛰어난 점을 인식했지만, 타 공동체(들)에 대해서 악의적 공격이나 미움을 발하지 않았고, 그 공동체(들)와 공존하려 했다. 한국 교회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로 나뉘고, 교리적 입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또 세대에 따라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나뉜다. 그런데 이런 다름이 한국 교회에서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대한 미움과 적대행위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요한에게서 지혜를 얻는다면 신학적 다름이 공동체 간의 구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상대방을 이단으로 쉽게 정죄하고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특히 신앙 공동체 내부의 서로 다른 집단인 첫 세대 제자들과 다음 세대 제자들, 요한 공동체와 베드로 공동체 간에 공존과 공영을 꾀하고, 그 안에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다.

### <주요어>

요한복음, 배제, 포용, 이원론, 세상, 세계관, 유대인들

### <Key Words>

The Gospel of John, exclusion, inclusion, dualism, world, worldview, Jews

\* 접수일 2020년 3월 10일, 수정일 2020년 4월 7일, 게재 확정일 2020년 4월 16일

## 참고문헌

- 김동수, “요한복음의 베드로와 애제자: 적인가? 동지인가?,” 「복음과신학」 6 (2003), 152-173.
-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김동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교와 일치,” 「신약논단」 12 (2005), 623-643.
- 김동수, “요한복음 주석서에 나타난 이상근의 교회 이해,” *Canon&Culture* 11(2017), 143-168.
- 서중석, “요한복음서의 베드로와 애제자,” 「신학논단」 19 (1991), 25-44.
- Balz, H., “*λόσμος*,” *EDNT* vol II, 309-313.
- Bieringer, Reimund, Didier Pollefeyt, Frederique Vandecasteele-Vanneuville, *Anti-Judaism and the Fourth Gosp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1.
- Barton, Stephen C., “Johannine Dualism and Contemporary Pluralism,” Richard Bauckham and Carl Mosser, eds., *The Gospel of John and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3-18.
- Brodie, Thomas L., *The Quest for the Origin of John's Gospel: A Source-Oriented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Brown, R. E., 『요한 교회의 신앙과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 Brown, R. E., 『요한복음 I』, 서울: CLC, 2013.
- Brown, R. E., 『요한복음 II』, 서울: CLC, 2013.
- Bultmann, R., *The Gospel of John*, Oxford: Blackwell, 1971.
- Casey, M., *Is John's Gospel True?*, London: Routledge, 1996.
- Charlesworth, James H.,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alism in 1QS 3:13-4:26 and the ‘Dualism’ Contained in the Gospel of John,” James H. Charlesworth(ed.), *John and the Dead Sea Scrolls*, N. Y.: Crossroad, 1991, 76-106.
- Culpepper, R. Alan, “Inclusivism and Exclusivism in the Fourth Gospel,” John Painter et al. eds., *Word Theology, and Community in John*,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2, 85-108.

- Culpepper, R. Alan, 『요한복음 요한서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 Culpepper, R. Alan, "The Gospel of John as a Document of Faith in a Pluralistic Culture," *What is John?: Readers and Reading of the Fourth Gospel*, Fernando F. Segovia(ed.)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6, 107-127.
- Culpepper, R. Alan, "Peter as Exemplary Disciple in John 21:15-19,"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7(2010), 165-178.
- Gundry, Robert H., *Jesus the Word according to John the Sectarian*,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 Gunther, J. J., "The Relation of the Beloved Disciple to the Twelve," *TZ* 37(1981), 129-148.
- Hartin, P. J., "The Role of Peter in the Fourth Gospel," *Neot* 24(1990), 49-61.
- Hawkin, David J., "The Function of the Beloved Disciple in the Johannine Redaction," *Laval Théologique et Philosophique* 33(1977), 135-150.
- Hübner, H., "μένω," *EDNT* vol 2, 407-408.
- Martyn, J. Louis,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3rd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Klink III, Edward W., *The Sheep of the Fold: The Audience and Origin of the Gospel of Joh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Köstenberger, A., 『요한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Kragerud, A., *Der Lieblingsjünger im Johannesevangelium: Ein exegetischer Versuch*, Hamburg: Grosshaus Wenger, 1959.
- Kuhli, H., "Ιουδαϊός," *EDNT* vol. 2, 193-197.
- Kysar, Robert, *Voyages with John: Charting the Fourth Gospel*,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5.
- Kysar, Robert, *The Maverick Gospel*, rev. ed.,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3.
- Marrow, Stanley B., "κόσμος in John," *CBQ* 64 (2002), 90-102.

- Mahoney, R. K., *Two Disciples at the Tomb*, Frankfurt: Lang, 1974.
- Maynard, A. H., "The Role of Peter in the Fourth Gospel," *NTS* 30 (1984), 531-548.
- Meeks, Wayne A.,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JBL* 91 (1972), 44-72.
- Meeks, Wayne A., "요한 분파주의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 「신약논단」 18 (2011), 323-373.
- Mendez, Hugo, "Did Johannine Community Exist?," *JSNT* 42(2020), 350-374.
- Rensberger, David, *Johannine Faith and Liberating Communit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1988.
- Roloff, J., *Die Kirche im Neu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Smalley, Stephen S., *Thunder and Love: John's Revelation and John's Community*, Milton, Keynes: Nelson Word, 1994.
- Smith, Terrence V., *Petrine Controversies in Early Christianity: Attitudes towards Peter in Christian Writings of the First Two Centuries*, Tübingen: J. C. B. Mohr, 1985.
- Snyder, Graydon F., "John 13:16 and the Anti-Petrinism of the Johannine Tradition," *BR* 16 (1971), 5-15.
- Titus, E. L., *The Message of the Fourth Gospel*, N. Y.: Abingdon, 1957.
- Quast, Kevin, *Peter and the Beloved Disciple: Figures for a Community in Cri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 Volf, M.,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 Volf, M.,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21세기 이슈들과 신학적 성경 읽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Volf, M., "Johannine Dualism and Contemporary Pluralism," *Modern Theology* 21 (2005), 189-217.
- Watty, W. W., "The Significance of Anonymity in the Fourth Gospel," *ET* 90 (1978-79), 209-212.

Yong, Amos,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Johannine Dualism and the Challenge for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Today,” *The Journal of Religion* 89 (2009), 31-56.

<초록>

## 요한의 세계관

- 배타주의인가? 포용주의인가? -

김동수

(평택대학교)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 혹은 다수가 배제주의를 택하느냐 아니면 포용주의를 택하느냐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이것과 관련하여 신약성서의 특정 문서나 저자가 궁극적 배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호공존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현대 주석자/해석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동안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요한은 그 이원론적 사상 혹은 그 공동체가 회당에서 쫓겨난 트라우마로 인해 배타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어떤 학자는 요한은 배타주의와 포용주의를 다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창조적 긴장 관계로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보았다.

요한복음이 궁극적 배타주의를 취한다는 주장과 배타주의와 포용주의를 역리적으로 그대로 긴장상태로 놓아두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논자는 요한복음 저자는 궁극적인 배타주의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동시에 애매모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양가적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자는 요한복음 저자가 적대자 혹은 경쟁자로 여기는 두 그룹에 취하고 있는 태도에 주목할 것이다. 첫째,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자 혹은 외부자인 “유대인들” 혹은 “세상”이라고 표현된 불신자 그룹에 대한 요한의 태도다. 요한은 이들을 궁극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것인가? 요한의 이원론은 적대자들에 대한 궁극적 배타를 염두에 둔 것인가? 둘째,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 그룹인 베드로로 대표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요한의 태도다. 예수가 사랑한 제자(애제자)를 그룹의 대표자로 여기는 요한 공동체

는 타 기독교 공동체를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는가? 베드로로 대표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요한은 배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또 요한복음 안에 있는 구별된 신자 그룹 사이에서 엘리트 그룹이 다른 그룹을 배제하는가? 논자가 이 논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 요한은 외부자 혹은 적대자에게 궁극적 배타를 꿈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경쟁자인 여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도 상호 선의로 공존하려고 했지, 그들을 적대적 경쟁자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bstract>

## **John's Worldview: Exclusivist or Inclusivist?**

Dongsoo Kim  
(Pyeongtaek University)

Recently the theme of exclusion became a hot issue in religious studies. This issue was an object of some New Testament studies by scholars. The question was whether or not a certain New Testament author held an exclusivist worldview. It has generally been believed that the Johannine worldview is exclusivist. Against the above scholarly posit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rgue that John does not hold the exclusivist worldview, either toward insiders or outsiders of the Johannine commun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judging whether a certain author holds an exclusivist worldview or not, I propose, is his attitude towards his opponents or rivals in particular. Thus in this paper I take John's attitudes towards his outsiders(opponents) and his insiders(rivals) reflected in the Gospel of John seriously. First, Is John exclusivistic against his opponents, namely "Jews" or "world"? Is the so-called Johanne dualism exclusivistic? Second, Is John against his rivals? Is John elitist? Is there any discrimination against a certain group of Jesus' disciples? By analyzing Johannine opponents expressed in such words as "world" and "the Jews", I try to show that John is not definitely exclusivistic against them. Further, by examining the "empty tomb" event in John 20:1-10, I attempt to show that the nature of the rivalry between Peter and the Beloved Disciple is not exclusivistic against each other. There is a subtle rivalry in it, through which the Fourth evangelist wants to show

a constructive rivalry, which is not exclusive in nature. This paper shows that John is not exclusivistic against neither his opponents nor his rivals.